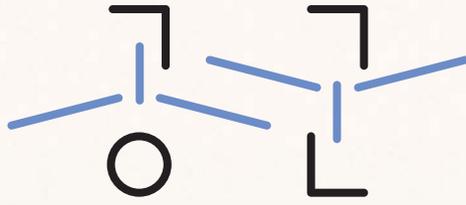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1
12
5 2 2

<http://afzine.co.kr>



Contents

04	기획특집	2021 공군 이모저모
08	기획특집	공군본부 우주센터 신설!
<hr/>		
10	특별기고	'우주 전쟁 시대' 공군, 우주군의 중심으로 (국민일보 김성훈 기자)
12	특별기고	공군이 시작한 슬기로운 족구 생활
14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마지막화 장만영(張萬榮) 시인 편
20	내 옆의 공군인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진균 교수
26	우리 부대는	항공우주의료원
30	지금 이 순간!	공군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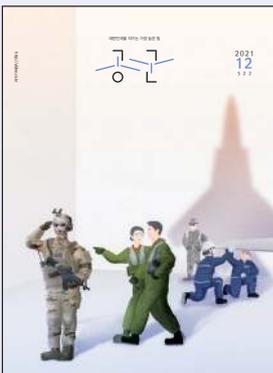


표 지(앞) 우리는 모두 공군(병장 황현동)
표 지(뒤) 공군인들의 겨울 스포츠!(자토 작가)

발행일자 2021년 12월 1일(통권 제522호)
발행 대한민국 공군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집감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획·편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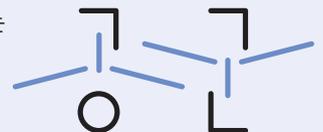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111045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40 한 달, 한 권 수많은 점을 찍어봐요
- 42 명상을 말하다 지혜로운 사람
- 44 영화로운 나날 천재의 평범하고 특별한 사랑 이야기

-
- 46 생각하는 그림 신호등
 - 48 공군인의 편지 나의 어린 숙이에게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일병 이승헌)
 - 49 책읽는 공군 오래고 무용한 것들에 대한 사랑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병장 이상윤)
 - 50 수용의 미학 수용의 온도
 -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2021 공군 이모저모

올해 공군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더 높은 도약!

지난 2월 8일,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군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공군비전 2050』을 발간했습니다. 어느덧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군이 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자, ‘스마트한 항공우주군’ 건설에 대한 계획이 담겨있는데요. 올해는 모든 공군인이 『공군비전 2050』을 이정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헌혈증 4,000장 기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2월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헌혈증 4,000장을 기부하였습니다. 10전비는 2018년부터 총 9,000여 장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장병과 군무원들이 한 해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여 이전에 기부했던 헌혈증 2,020장보다 2배 더 많은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헌혈증 기부에 지속 동참해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군 최초 공정통제사 탄생!

2월 22일에는 여군 최초 공정통제사 이윤지 하사가 탄생했습니다! 공정통제사는 전시 공중전력과 지상전력을 연계하고, 항공기 관제와 유도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특수요원입니다. 대테러작전도 가능하고, 해외 재해 재난 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윤지 하사를 비롯한 4명의 초급 공정통제사들은 19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완수해 공정통제사를 상징하는 빨간 베레모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든든한 수호자답게, 앞으로의 훈련도 무사히 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69기 졸업 및 임관식



보라매들이 힘차게 날아라!

3월에는 공군사관학교 제69기 졸업 및 임관식이 있었죠.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167명의 사관생도와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은 지난 2017년부터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시기라, 가족과 지인들은 졸업식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SNS를 통해 졸업식을 생중계했습니다.

공군 픽토그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올해 4월에는 공군의 다양한 요소를 그림문자로 표현한 '공군 픽토그램'이,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 '공군 의복 캐릭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공군과 관련된 27개의 카테고리 와 720가지의 그림 문자 모두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와 김현준 병장(병 803기)이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2번이나 수상했으니, 공군을 디자인 강군이라 불리도 되겠죠?



6·25전쟁 참전 공군 항공기의 귀환

6월 6일, 1950년대 공군에서 임무를 마치고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교육과 연구에 활용되었던 항공기가 공군으로 귀환했습니다. LC-195 2대, L-26, L-5, L-16 각 1대 등 총 5대로, 군용기 임무를 마치고 6·25전쟁 참전조종사이자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였던 故 위상규 교수(1926~2008)에 의해 연구 및 교육용으로 활용됐었죠. 특히, LC-195와 L-16은 현재까지 공군에서 보존하지 못했던 기종이고, 6·25전쟁에서 활약했던 L-5는 당시 민항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항공기들입니다. 항공작전과 항공교육 양면에서 고생하고 복귀하는 노병들을 잘 예우하고 국민들께 공군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르고 강한 공군을 위해

8월에는 공군이 병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공군본부에 참모총장 직속 조직인 ‘병영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의사소통을 하고, 병영혁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의 날개가 된 공군!

지난 8월 26일엔, 공군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날았습니다. 내전이 발발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에 협력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미라클 작전’을 펼쳤는데요. KC-330 공중급유기 1대와 C-130J 수송기 2대, 조종사와 정비요원, 공정통제사, 항공의 무요원 등 60여 명의 최정예 작전요원이 전격 투입됐죠. 전시를 방불케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300여 명의 조력자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공수했습니다. 완벽한 전술수송능력을 보여주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죠.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 획득!

8월 말,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공군'이 구독자수 10만 명을 달성해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채널 개설 이후 공군의 다양한 모습을 친숙하게 풀어내는 다채로운 시리즈를 국민들께 선보여왔죠. 영상 누적 조회수는 무려 5,315만 회! 공군은 구독자 수 100만을 향해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공군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좋아요·알람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주 역량 발전에 박차

9월에는 공군과 국가 우주전문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관의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민군 공동 위원회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우주 분야 민간 전문가 22명과 공군 내 우주 업무 담당자 19명이 참가했죠. 앞으로 연 2회 정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열어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추진력을 토대로 우주력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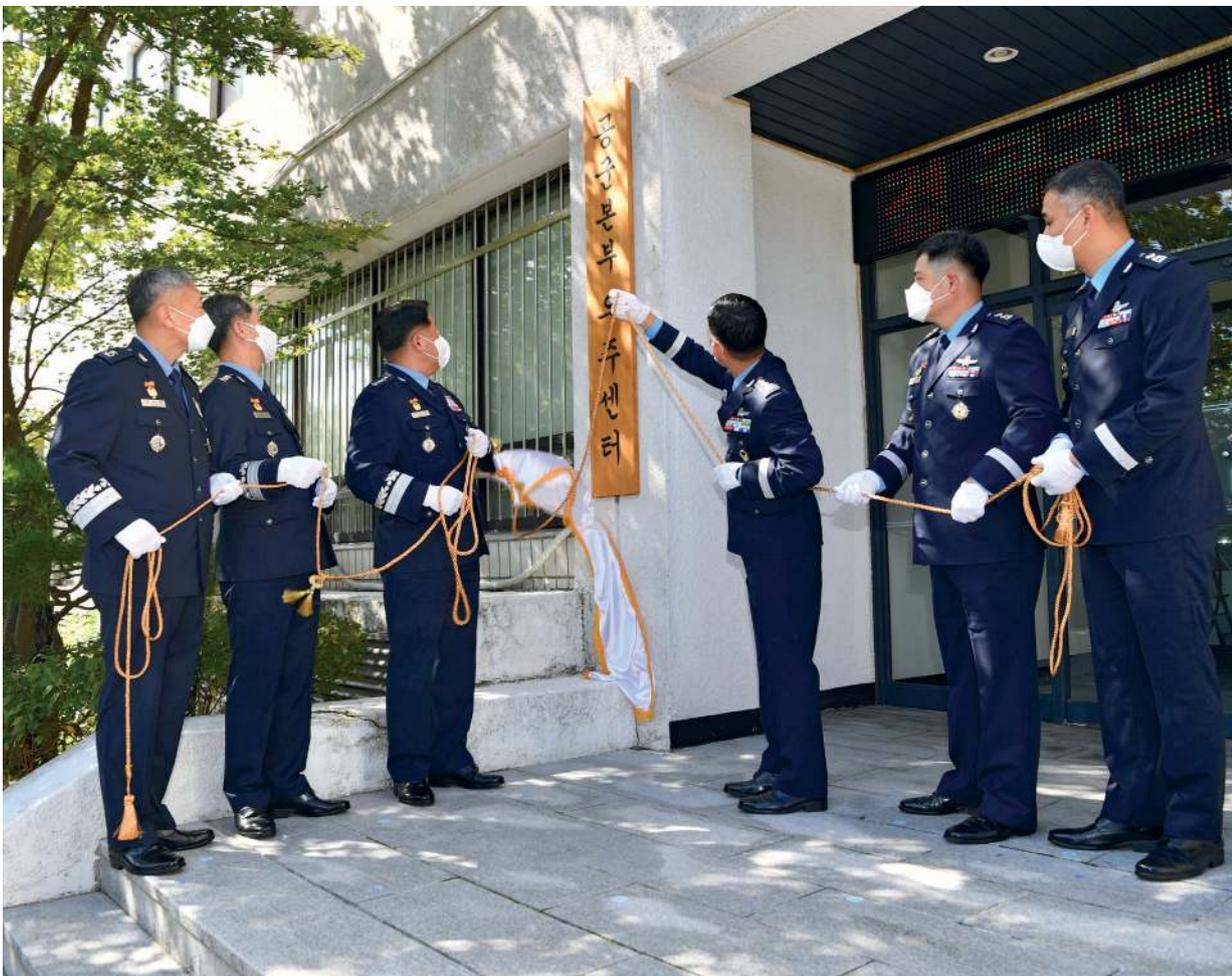
국민조종사 가을 하늘을 날다

2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이벤트! 바로 국민조종사인데요. 격년으로 실시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대국민 참여 행사이죠. 올해는 역대 최고 경쟁률 535:1을 뚫고 4명의 국민조종사가 선발됐습니다. (주)공부의신 대표 강성태, 항공기 엔지니어 강해구,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 김보준, 6전 7기의 도전 끝에 선발된 손효영 씨인데요. FA-50과 T-50에 탑승해 전국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공군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장병과 군무원 중 성낙간 준위와 김정민 중사(진)을 명예조종사로 임명해 국민조종사와 함께 비행 체험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 이번에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은 2023년 제9기 국민조종사에 꼭 도전해보세요! AF



우주공군으로 도약, 공군본부 우주센터 신설!

올 한해는 공군이 ‘우주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한 강연도 자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했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인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도 수립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초의 우주전력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해 열심히 작전 준비 중이죠.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공군의 우주 전문 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소개합니다.



공군은 지난 9월 30일(목), 국방우주력 발전과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소속 우주처를 공군참모총장 직속 부서로 조직구조를 변경한 것인데요. 이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대외기관들과 우주역량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 적시적인 우주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주센터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 등 3개 부서로 편성됐습니다. 각 부서들은 「에어포스 퀴텀 5.0」과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Space Odyssey 2050)」를 근간으로 하여 공군의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의 핵심영역인 우주에서 합동전영역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우주작전 무기체계 전력화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신규 소요창출 등 전방위 우주역량 강화를 통해 우주위협과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우주안보 임무도 함께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군본부 우주센터 현판식에서 초대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박기태 대령(공사 40기)은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국방부와 합참이 추진 중인 우주분야 핵심과제들을 적극 지원하고,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가속화하여 도약적인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우주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에 증가되는 우주위협과 위협에 맞설 국가우주안보를 위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실질적인 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전력 구축과 우주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강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우주안보 강화와 더불어 공군이 우주공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우주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고, 9월 23일(목)에는 민·군 공동 위원회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공군본부 우주센터는 이러한 각종 우주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공군의 우주전문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F)



'우주 전쟁 시대' 공군, 우주군의 중심으로

글쓴이 국민일보 김성훈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공군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소리 없는 공간' 우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주에서 전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동북아 주변국의 항공력은 우주군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정찰위성, 레이저무기 등 우주 전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우리도 생존을 위해 우주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군은 현실화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주 공간을 실제 작전 지역으로 구분하는 등 우주전(戰)에 대비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중국은 '우주굴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극 초음속 미사일을 우주로 발사하며 신무기 실험에 나섰다. 미사일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로켓에서 분리된 활공체가 목표물을 타격했다. 미국은 지구 어느 방향에서든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체계(MD)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번 실험을 두고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해 충격에 휩싸였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2007년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기도 했다. 이후 각국의 비난이 이어지자 우주 공격무기 개발을 민간 연구활동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로보팔이 달린 위성 '쉬지안-21'을 쏘아올리면서 "우주 파편(쓰레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은 "다른 인공위성을 로보팔로 붙잡거나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위성을 공격하면 해당 국가의 통신·항법 장치를 무력화해 순식간에 국가 마비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외에도 전자파방해 장치, 레이저 등 위협적인 우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제 막 우주작전에 대한 개념도를 그리는 수준이다. '우주영역인식', '우주정보지원', '우주전력투사', '대우주작전(우주통제)' 등 4단계로 구분한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첫걸음은 작전 공간으로서의 우주 영역을 인식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전장에서 전투를 치를 때 작전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 우주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군은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정보상황실,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 기상단 우주기상팀을 꾸려 실제 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

전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으로 불리는 2050년까지의 우주 전력 건설 청사진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의 로켓 잔해가 추락해 전 세계가 긴장할 당시 공군은 미 우주사령부와 협력해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참모총장은 정례적인 우주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인적교류·기술협력·정보공유 등 다양한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자체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군 당국은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도입이 시작되는 초소형 위성체계는 악천후에도 1m의 해상도로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을 저궤도에 다수 배치해 감시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제작 비용을 대폭 낮춘 초소형위성 수십 기를 운용하면 여러 개가 고장 나거나 공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위성을 통해 넓은 영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다. 이후 레이저와 레이더를 비롯한 우주감시체계를 목표대로 확보하게 된다면 2030년쯤엔 본격적인 ‘우주 정보전’이 가능해진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군의 우주전력 증강 계획에도 탄력이 붙었다. 발사체 개발의 족쇄였던 지침이 사라짐으로써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체추진체 개

발이 가능해졌다. ‘누리호’를 비롯한 한국형 발사체가 진화할 경우 우리가 초소형 위성들을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다. 우주 인프라 자산이 늘어나면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군집 위성체계를 갖춘다면 적의 교란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한국형 GPS(위성항법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다. 위성 신호를 활용한 무인전투체계나 드론봇 등 미래 전력의 전투력도 크게 향상된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위험도가 큰 비무장지대(DMZ)의 무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애기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대우주 전략’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권역 정도를 커버하는 ‘소우주 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의 위협에 대비하는 동시에 우주를 군사적,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군을 필두로 육·해·공군의 우주전력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초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어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과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 및 작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서 활약하는 공군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길 기원한다. **AF**

공군이 시작한 슬기로운 '족구(JOKGU)' 생활

글쓴이 김철홍 소대헌·호연재 고택 관장



대다수의 사람이 '구기(球技) 종목'하면 떠올리는 것은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족구(JOKGU)가 우리나라 최초의 구기종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족구는 두 팀 간에 네트를 사이에 두고 머리와 발을 이용하여 상대 팀으로 공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학창 시절 체육 시간이나 군대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운동이죠. 그만큼 쉽게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앞서 말하듯 족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유사 등 삼국시대를 다룬 문헌에는 '신라의 화랑들이 마른 짚 따위나 풀로 공을 엮어 만들어 중간에 놓인 벽을 차서 넘기는 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족구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족구가 선조들의 민속 공놀이 문화였고, 그 역사는 1,300년 이상 매우 오래된 것으로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족구를 이야기할 때면 1966년 공군을 이야기합니다. 제11전투비행단 제101전투비행대대(김진섭 중령, 1979년 소장예편) 조종사들이 비상대기하면서 조종복을 입은 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 대대 배구장에서 배구 네트를 밑으로 내려 배구공이나 축구공을 인

원에 제한없이 축구와 같이 손만 사용하지 못하고 몸 어느 부위나 다 사용하여(현재 규칙은 목 위와 무릎 아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로 넘기는 놀이로 시작됐습니다. 1968년 5월 당 대대 정덕진 대위(작고)와 안택순 중위(1998년 소장예편) 등이 발공치기 일명 '족탁'이라는 경기 규칙을 창안하여 국방부에 상신,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육군과 해군 등 전군에 전파되어 장병들의 심신단련은 물론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는 스포츠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4년 1월 국방부 발간 『국군체육(체력관리)』 책자에 처음으로 '족구'라는 공식적인 명칭과 현대적인 경기규칙이 적용된 6인제 족구 규칙이 발표돼 전군에 더욱 확대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즐기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90년 4월, 대한족구협회(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연합회)도 창립되었죠.

그로 인해, 경기 규칙과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독일 축구 대표팀이 훈련 전 족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됐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제10전투비행단 체육대회 중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족구팀 및 족구인은 축구 다음으로 많은 1,420여 개 팀 26,600여 명이 대한민국족구협회(2016년 통합)에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 조직을 포함하면 15,000여 팀(클럽)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대회는 물론 지자체 단위 등 770여 대회가 개최될 만큼 범국민적인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집행부에서 족구의 전국체전 시범종목 및 세계적인 K-SPORTS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족구는 전신 운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절과 관계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별다른 장비나 도구없이 간편한 옷차림에 공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규칙이 간단하여 쉽게 배울 수 있고 승부가 빠른 종목으로 불과 1분 이내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어 족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다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뼈에 무리가 없고 충돌에 부상 염려가 없으며, 많은 체력을 요구하지 않아 70세 이후에도 가능함을 필자는 몸소 체험하고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시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시죠. 감히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

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슬기로운 족구 생활’로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추워지고 있지만, 움추린 몸을 기지개쳐고 운동장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AF



족구가 소개된 1969. 5. 22. 주강공군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마지막화 장만영(張萬榮) 시인 편



「코메트」 제15호, 1955년

남행시초(南行詩抄)

I

어찌넉 개구리 울음에 잠이 돈 내가
 오늘 아침 뺨국새 울음에 눈을 떴다.
 눈 녹여 흘리 듯 시웃을 씻고
 아침 햇빛 눈 부신 창 가에 서면
 무명웃 새로 갈아 입은 나는 소년이 된다.

II

더운 물이 철철 흘러 내리는
 아늑한 천향(泉鄉)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무수한 여관집 간판이 손을 기다린다
 낮이면 나이롱이 춤추며 오고가고
 밤이면 계집들의 웃음이
 호박꽃처럼 노오랗게 피어나는거리,
 그 거리를 나는 박쥐모양 날아 다닌다.

III

장난감 같은 조그만 정차장에
 지금 막 오늘의 막차가 달려와 섰다.
 나는 호미한 가로등 아래 서서

혹시나 나를 찾아 오는 나타샤 같은 애인은 없는가하고
 어둠 침침한 개찰구만 내여다 보고 있다.

공연한 기대를
 주인검처럼 짓씹으며…….

장만영(張萬榮) 시인은 「남행시초」(『코메트』 제15호, 1955)와 「그날의 감격-8·15를 회상하며」(『코메트』 제28호, 1957) 등 시 두 편을 남겼다. 앞에서 소개한 시, 「남행시초」는 후에 제목을 「여수(旅愁)」로 바꾸어 시와 수필 작품들을 함께 엮은 책, 『그리운 날에』(문영각, 1962)에 발표했다. 「남행시초」 시를 ‘참가에 기대 서면’, ‘천향’, ‘가로등 아래 서면’ 등 소재목을 붙여 세 부분으로 나누고 말미의 “공연한 기대를/쭈인쭈인처럼 짓씹으며…….”만 삭제했으며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장문의 시로 발표했다. 추가로 이어진 부분을 여기서 소개한다.

여수(旅愁)

(중략)(「남행시초」 시 부분)

작 별

왜 갑자기 파도는 높아지는가?

-편지 하세요.

귀를 꼬집고 말소리 흘트리며

바닷 바람이 먼 물으로 달아난다.

-잊지 말고요.

갈매기란 높은 갈팡질팡

왜 또 저리 야단법석대는가?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뒷 산 숲에서 삐죽새가 내닫는다.

파도소리……. 파도소리…….

파도 소리에 섞여

삐죽새 울음소리…….

조개껍질을 들고

귀가 소라껍질 닮았다고 노래한 장·족도여

안타까이 바다 소리를 그리던 키다리 시인이여

말라깽이여 빼빼여

아카데미산이여

당신의 나라 깃발 같은

저녁 노을이 비긴 하늘 아래 서서

나는 가보지 못한 프랑스와

만난 일 없는 당신을

당신의 술을 그리워합니다.

무슨 옛 얘기라도 간직한 듯한

요 조그만 소라 아닌 조개 껍질을 손에 들고…….

(「남행시초」)

초애(草涯) 장만영 시인(1914-1975)은 황해도 연백 출신으로 1932년 오늘날 경북고등학교인 경성 제2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그 해에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의 추천을 받아 『동광』지에 「봄노래」를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을 걷는다. 신석정 시인의 처제, 박영규 씨와 결혼하여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그래서일까. 그는 「전라도 길」이라는 시에서 “나의 반생과 같이 긴, 그리고/눈물겹도록 정 깊은 길이다.”라고 토로했듯이 전라도를 제2의 고향처럼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

장만영 시인은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산호장 출판사를 직접 경영하기도 하고 1950년대에는 서울신문사 출판국장과 신문에 주간을 역임하는 등 출판인, 언론인으로서 활약했으며 대학에서는 잠깐 동안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해외의 많은 시들과 문학작품들을 번역하여 문학번역가로 활동했던 것도 1950년대 전쟁과 파괴 등 황폐해진 정신세계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여 당시 우리 문학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장만영 시인(국학자료원 제공)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밀턴의 『실낙원』 등을 읽으며 문학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정작 그가 감흥을 받았던 것은 벨기에 시인인 메테를링크(Maeterlinck Maurice)의 『파랑새』였고 이때부터 해외의 전원시인들의 작품을 섭렵했다.

장만영 시인이 모더니즘계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시의 기저에는 이러한 동심의 세계와 맞닿은 시들이 많다. 삼대독자였던 그가 해방과 동시에 고향이 38선 이북에 놓이면서 고향과 단절이 되고, 전쟁은 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상실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 시들도 그의 시세계를 형성하여 전원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에는 “순이”라는 여성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그가 구르몽(Ramy de Gourmont)의 “시몬”에 견줄 수 있는 가상의 여인이다.

나의 시몬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이윽고 나도 우리 땅에서 시몬과 같은 여성을 찾아내었다. 그녀가 바로 순이다. 그때부터 나의 시에는 이 가공적 여성이 자꾸 등장하게 되었다. 비에 나오는 순이도 그 여성이다.

(『장만영전집 3권』, 국학자료원, 2014)

이 가공의 여인을 매개로 하여 그리운 정서를 토로한다. 사람들이 흔히 그의 대표작으로 「달. 포도. 잎사귀」를 뽑고 있지만 정작 시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시는 애뜻한 그리움을 노래한 「호수로 가는 길」이다. 전체적으로는 그의 시 경향은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린시절의 순수했던 동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환상 등을 노래하는 회귀적인 시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선문학』 제7호,
1953년(대구작가콜로퀴엄, 대구문화관 제공)

나는 고향을 떠나가리라./십년 전 옛날/귀거래 한 편을 써 던지고/서울이 싫어/아니, 못견디게 그리웁기/돌아왔던 내고향.(중략) 코를 푼 찰흙 냄새,/풀향기, 꽃향기,/벌레소리에 이어 들리는 그윽한 속삭임
(시 「이향사(離鄉詞)」 중에서)

그는 6·25전쟁 기간 육군중군작가단에서 활동하면서 『전선문학』을 발간하였고 전쟁과 관련한 시와 산문들을 다수 발표했다. 1937년 그의 첫 시집, 『양(羊)』을 시작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73년에 『저녁놀 스러지듯』을 발표하여 모두 8권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문학이론서와 산문집도 발표했다.

장만영 시인은 청렴한 선비적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직전에는 고향에서 부모가 온천 호텔을 개발하여 부유하게 살았지만 분단 이후에는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 그의 일기에는 연탄과 쌀이 떨어져 고초를 겪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후기에 가서는 삶의 고초, 고달픔 등을 다룬 시들이 있다.

남의 돈을 빌려쓰기란 죽기보다 싫은 일. 내 것을 팔아서라도 떼뻗이 살고 싶다.

온종일 마음이 우울하다.

(『장만영 전집 4권』(일기편), 국학자료원, 2014)

많은 문인들이 그랬듯이 돈에 쫓기면서 출판사 등에서 가불하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그러면서도 “나이를 먹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술이 늙는 것이 슬프다.”고 고백했다. 그가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신경을 썼던 것은 예술정신을 잃지 않는 것과 참인간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감상이란 일생을 두고 해야 하는 일대사업인 것이다. 인간적 수업인 것이다.

통속적으로 말한다면 한 인간이 되려는 것이다. 작은 인간이 아닌, 진실된 어른이 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도 말한 바 있는 훈련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

(『시감상법』, 『그리운 날에』, 문영각, 1965)

그에게 문학, 시의 감상 혹은 활동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고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실된 어른’이 되는 여정으로 생각했다. 그가 시 창작뿐만 아니라 해외의 좋은 시 작품들을 열심히 번역했던 것도 그의 이러한 문학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아 눈을, 뇌를 질질 태우던,
태우며 해바라기를 그리던
나는 미치광이 화가 반 고흐를 생각한다.
네모진 창가에 앉아

그는 처세할 줄 모르는 위인이었다.
타협할 줄 모르는 벽창호였다.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선인이었다.

(시 「네모진 창가에 앉아」 중에서)



장만영 시비(웅인 자연휴양림)



장만영 조가 시비(국립 4.19 민주묘역 내)

위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세대와 시인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우리가 지나 온 시대란 실로 숨 가쁘고 어두운 행로였다.”고 하면서 “등골에서 진땀이 날 정도의 위태위태한 세태를 살아온 셈”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세상을 겪으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본연의 과업을 다하며 살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벽에 기대듯 그 어느 권세나 재물에 기대 살고 있는가. 나는 못마땅할뿐더러 도무지 위태로워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벽에서와 같이 권세나 재물이 무너지는 날, 거기 기댔던 사람들은 그대로 나자빠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촛불 아래서』, 『장만영전집 3권』, 국학자료원, 2014)

그는 「유서」라는 시에서 “나는 영원으로 돌아갈 뿐”이라며 거창한 장례식을 거절하며 화장하여 강이나 황해바다에 뿌릴 것을 권한다. “그저 태어났다 그저 훨훨 떠나는 마음만이 기쁘다”고 미리 작별 인사를 남긴다. 살면서 ‘출세와 부귀영화’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노력했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죄를 짓고도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며 마지막까지도 세상에 과시를 하며 권세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부류들과는 다르게 그는 “아무도 모르게 화장터로 가져다가 태워버려라.”라고 말한다. 문학과 시를 통해 올곧은 삶을 실천했던 시인다운 모습이다. AF



조병화 시인(오른쪽)과 장만영 시인(왼쪽) (국학자료원 제공)

연재를 마치며...

그동안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코너를 함께 했던 월간 『공군』 관계관분들, 필자로 참여하여 코너를 빛내준 김금용 주간님과 나민에 선생님 그리고 변함없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대구문화관 등 관련 문학관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공군지에 수록된 많은 문학작품들은 공군사와 우리 문학사에도 뜻깊은 기록이라고 봅니다. 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며 연재의 글을 마칩니다.

공군 신고전화 7979입니다.

군 전화는 (국번없이) 7979, 일반전화는 042-552-7979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7979는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제32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최진균 교수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안녕하세요. 공군 장병과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01년 공군항공과학고 제30기로 졸업하고, 2008년에 공군 하사로 전역한 최진균입니다. 전역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어느덧 8년 차 의사네요. 지금은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군 하사에서 응급실 의사라니’ 많은 분들이 제 소개를 듣고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최진균
83.2.22(양)

물처럼 살고 싶다.
그뿐이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는데, ‘월간 공군’과 우연히 연이 닿아 부족한 저이지만 공군에 대한 애정으로 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항공과학고 제30기 최진균

군 생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항공과학고 재학 시절을 떠올려요. 그만큼 가장 좋았던 기억이에요. 동기들과 3년 동안 함께한 나날들 모두가 너무 소중한데요. 특히,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1학년 시절 체육대회 응원단을 준비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S.E.S의 〈I'm Your Girl〉이란 곡을 준비했었는데, 선천적으로 몸치, 박치여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아쉽게 체육대회 때 비가오면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기억 중 하나네요. 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외쳤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을 열고, 귀 담아 들으며, 소리낮춰 말하는 기호 1번 최진균’이었습니다. 경쟁자가 3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조금은 진지한 자세로 회장 선거에 나선 것이 경쟁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동기생과 후배들을 위해 뛰어다닌 것이 제 자랑 중 하나랍니다. 이런저런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동기들과 산 넘어 BX까지 걸어가서 냉동식품을 먹었던 일, 기숙사에서 동침하고, 운동하고 그런 사소한 일들이 가장 그립습니다. 졸업할 때에는 나름 멋진 좌우명을 하나 안고 교정을 떠났습니다. 졸업앨범에도 적어두었는데요. ‘물처럼 살고 싶다. 그뿐이다.’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 저곳 정처없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물이 되고 싶어요.

진급 누락을 전화위복 삼아

졸업을 하고 나서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비파괴검사 특기로 7년간 항공기 정비를 했습니다. 전투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모든 부품을 분해할 수 없죠. 분해하지 않고 안에 생긴 균열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F-4, F-5를 정비했고, 전역 무렵에는 F-16도 몇 대 정비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사들도 영내 생활을 2년간 했습니다. 내무생활을 썩 잘하진 못해 혼나는 날들이 다반사였죠. 2년 차 영내 생활 때는 야간대학에 다니기도 하며, 자기계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항공과학고에서 영어 교관으로 후배들에게 수업을 하고 싶어서 영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잠깐 다니기도 했죠. 여차저차 시간은 흘러 5년 차 하사 때, 진급 발표가 났죠. 다른 동기들은 대부분 진급했는데, 저는 진급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 미진했던 부분들이 많아서였어요.



항과고 30기 졸업앨범 중

친한 선배님께서는 ‘공부해야 한다, 자격증 공부해라.’라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꽤나 큰 충격에 저도 정신 차리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자기계발에 힘썼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공부도 했습니다. 또, 독서 습관을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보니, 본래 목적과는 달리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가 주는 특유의 안정감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평생 직장도 좋지만,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의사가 되면 내 삶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대 시험을 준비했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상한 사람 보듯이 봤어요. 나이도 이미 20대 후반에, 군 생활만 10년째 하는 사람이 무슨 의대 공부냐고 만류했죠. 어머님께서도 머리에 흰 띠까지 둘러메시고 만학도가 되는 것만큼은 결사반대하셨어요. 그렇게 하사 6년 차에 의대 시험에도 전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근무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말리기 시작했죠. 저는 제대하고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과 주변 사람들을 겨우 설득해서 공군 하사 최진균의 길에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입시생 최진균의 하루하루가 시작됐죠. 한순간에 직업도 없는 20대 후반의 장수생이 되니 절박한 마음이 저를 뒤쫓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간절해서인지 곧장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의전원 합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더욱 치열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의학전문대학원에만 들어가면 끝이지 않을까 했던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최 교수

매주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이라도 유급을 하면 그 학기를 재수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명문대생이었고, 젊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모두 이과 출신이었죠. 놀랍게도 저는 문과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동기 중에 유일한 문과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저에게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 과목도 유급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실습 과목에서는 의외로 강점을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고, 전공을 응급의학과로 골랐습니다.

응급실은 가장 빨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다양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곳이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전공을 고를 수 있다고 해도, 응급의학과를 선택할 거예요.

응급실에서는 환자 진료도 보긴 하지만, 담당의들이 보는 진료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아침마다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살펴보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공유하죠. 응급실에는 사소한 감기부터 심정지 환자까지 오는 다이내믹한 장소라,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보람차고 빠른 진료를 통해 환자분이 쾌차하셨을 때면 즐겁기도 합니다. 보통 하루에 50~100여 명의 환자들이 오고 가고 약 50%가 중증 환자입니다. 아무래도 권역병원이다보니 중증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응급실은 주야 교대로 근무해서 쉬는 날도 많은데요. 보통 12시간 정도 일하고, 36시간 정도 쉽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도 있는데요. 모두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뒤의 낯나간 표정을 볼 때도 있습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른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들처럼 거창하거나 숭고한 직업의식에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님께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머님께 크게 효도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이들로부터 선망받는 직업이면서 돈도 잘 버는 직업이었으면 했죠.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만 밝히는 놈은 아닙니다. 하하하. 언제나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리운 공군

한번 선택하면 후회없도록 하자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전역을 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 밤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나... 부대에서 족구하던 그 때가 그리다.'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에 나오고 보니 끈끈한 동기에, 전우애가 그리더라고요. 가끔 군에서 단체로 부대 경연대회나 체육대회할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끝낸 뒤 회식하는 그 즐거움! 병원 생활에선 그런게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당장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데요. 요즘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슴 설레는 일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끌리더라고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머리가 굳어서인지 공부가 잘 안됩니다. 작년 로스쿨 시험에도 한번 응시해봤으나, 낙방했어요. 아무래도 생계가 달려있지 않아서 절박하지 않나 봅니다. 하하하. 아내는 의사에서 그만 멈추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공군에서의 10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직생활을 알려주었고, 동료애와 전우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도요. 과거엔 항공기를 돌보는 일을 했고, 지금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생사의 경계에 서서 바빠 움직이는 날들도 있구요. 여전히 저의 반은 공군인인가 봅니다. 지면을 빌려 공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게 항상 우리 영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실에서 저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자 몸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저를 보게 되시면 아는 척해주세요! 그럼 좀 더 잘 봐드리지 않을까요?^^ 끝으로 항공고 30기 동기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희들과 함께 항공과학고에서 뛰놀던 그때가 가장 그리다.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라. AF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 안내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공군인의 편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바탕체
- 10pt
- 줄간격 180%
- 공백포함 1250자 이내
(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

2 책읽는 공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바탕체
- 10pt
- 줄간격 180%
- 공백포함 1400자 이내

3 마음의 소리

[월간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응모방법

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

(인터넷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공군'
검색 후 '독자 의견' 코너에 게시)

양식

- 250자 내외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기간 매월 **10일** 까지

입선힬택 공군인의 편지, 책읽는 공군 지면 게시작 / 1등 - **포상금 5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등 - **기념품**
[공군인의 편지 당선 시 수신인 주소로 공군지와 기념품 특별 배송]
마음의 소리 게시작 / **기념품**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 개별발송)

우 리 부 대 는



항공우주의료원

적극적 보건예방·훈련활동으로 공군을 튼튼하게 하는,
 면밀한 연구활동으로 미래의 의료 체계를 선도하는,
 공군 유일의 독립 병원 기관! **항공우주의료원**

부대 마크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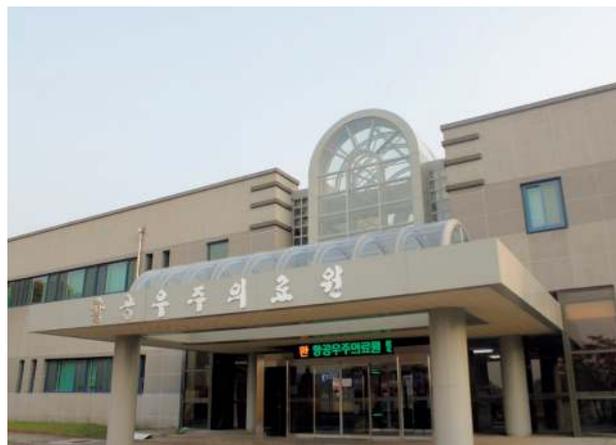
- **보라매** : 공군을 상징
- **방패** : 질병과 사고 방지
- **항공기** : 비행환경적응훈련을 상징
- **뱀** : 의무를 상징
- **주사기** : 진료를 상징
- **월계수 잎** : 승리를 상징
- **별 넷** : 공군본부 직할부대를 상징
- **[부대기 의미]** 희랍신화의 의성이 지녔던 신묘의 의술과 막강한 전력을 유지 및 발전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여 조국에 충성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뜻

부 대 연 혁

- 1949. 10. 공군독립과 동시에 공군병원으로 발족 및 진료업무 개시
- 2006. 04.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부대명칭 변경
- 2009. 06.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센터 신설
- 2011. 02.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 개관
- 2013. 06. 군병원 최초로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 인증 획득
- 2016. 10.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인가 획득
- 2021. 10.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공군 참모총장 우수부대 표창



코로나19 백신 접종



항공우주의료원 전경

공군 유일의 독립 병원 기관, 항공우주의료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1949년 공군의 독립과 동시에 공군병원으로 발족 및 진료 업무를 개시하였다. 2006년 4월,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부대 명칭을 변경한 뒤로, 군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공중근무자 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여 비행 관련 공중 보건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의학연구센터도 개관하여 우주 및 의학 분야 관련 연구 및 세미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0월,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우수부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항공우주의료원은 공군본부 직할 부대로서 연구, 훈련, 검진, 진료·간호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공군 유일의 독립적 군 병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획운영부

전·평시 빈틈없는 의무지원 수행

항공우주의료원 계획운영부는 부대의 각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및 근무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항공우주의학 특성화 병원 육성을 위해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전문인력 증원 등 필요 소요를 식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다. 군 병원으로서 원활한 의무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물자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의료물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비가 필요한 의무장비를 선별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다.



진료부

공중근무자 건강 관리 특화 진료, 진료부

공군 특성화 병원으로서 항공우주의학 전문병원인 '항공우주의료원 진료부'는 항공의무과, 진료1과, 진료2과, 치과, 원무과, 약제과의 6개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근무자 및 일반 장병, 군가족 등의 외래·입원 진료, 응급환자 처치, 각종 의료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 군의료 시스템 개편에 따라 3군 공중근무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우주의학 전문 진료과목 편성을 추진하며 공군 유일의 군병원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간호부

공군 장병 건강 수호천사

간호부는 공군 장병의 간호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항공간호과, 병동간호과, 외래간호과로 이루어져 있다. 간호부는 환자 간호 최신 경향을 항상 학습하며 부대생활 중 질병이 발생한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간호하며 나아가 국군 장병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성심성의껏 간호할 것이다.



건강관리 검진센터

공군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광각안저촬영기, MRI, CT 등의 최신 의무장비를 보유한 건강관리 검진센터는 공중근무자의 선발 및 정밀신체검사를 주 업무로 유해환경 근무자 특수검진, 이등병 건강상담 및 상병 건강검진, 장기근속자 검진 등 공군 전반의 신체검사를 수행하면서 군내 최고의 검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상 및 진단검사의 24시간 운영을 통해 외래, 입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검사와 판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화기계 암 건강검진 기관등록과 PCR 검사실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센터

공군 보건환경과 의학연구를 선도하는, 항공우주의학 연구센터

항공우주의학 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의학 연구기관으로서 공중근무자의 고공생리 연구와 항공기 운영에 따른 비행환경 및 특수환경에 대한 연구·환경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항공우주의학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우주의학과, 공군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직업환경과, 공군 역학조사반 운영 및 감염병질환 예방을 담당하는 보건예방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에서는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공군 보건환경 및 의학연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훈련센터

미래 항공우주 전력 양성의 핵심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는 비행환경적응훈련의 핵심 장소로서, 공중근무자에게 고공환경에서의 인체 생리학적 제한요소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지상에서 비행환경을 구현하여, 생리학적 G내성을 증진시키는 가속도내성훈련(G-Training), 3차원 비행환경에서 평형감각기관의 한계를 체험하는 SD(공간정위상실) 훈련, 35,000ft의 고공환경을 체험하는 저압실 비행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TA-50 편대비행





F-15K 비행



2021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방공유도탄사령부는 11월 3일(수), '21-2차 방공유도탄 사격대회를 대천 사격지원대에서 실시하였다.





KF-16 성능개량 항공기 지휘비행

박인호 참모총장은 11월 2일(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지휘비행을 실시하며, KF-16 성능개량 항공기에 대한 임무능력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참모총장은 “KF-16의 성능개량에 따라 최상의 전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범과 임무 절차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완벽한 임무수행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박인호 참모총장은 11월 9일(화) 공군호텔에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김선이 학회장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 위협과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완벽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주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군본부 북카페 개관식



박인호 참모총장은 11월 4일(목) 최근 리모델링한 공군본부 병영도서관 「북카페 休」의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병영도서관 담당자들과 공사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북카페는 기존에 책을 대여하고 읽던 단순 도서관 개념에서 MZ세대 장병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많은 장병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전사령부

후반기 기지방어 공용화기 사격대회

작전사령부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5일(금)까지 육군 천덕봉사격장에서 2021년 기지방어 공용화기 사격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공용화기를 운용하는 작전사 예하 20여개 부대가 참가해 각 부대 기지방어 요원들의 사격기량과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제1전투비행단

'21-2차 전투태세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11월 8일(월)부터 11월 11일(목)까지 나흘간 비행단의 임무 수행 및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21-2차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하였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호주 요소수 긴급 공수작전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10일(수), 호주 요소수 긴급 공수작전을 수행했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 2만 7000L를 수송하기 위해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11월 11일(목) 오후 김해기지로 복귀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설작전본부 장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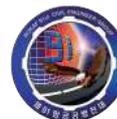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설작전본부는 11월 3일(수) 폭설 상황에 대비하여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제설장비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빙결 취약 구간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제53특수비행전대

삼천포중, 삼천포여중 진로교육

제53특수비행전대는 11월 4일(목), 사천에 위치한 삼천포중학교와 삼천포여자중학교를 방문하여 조종사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공군과 블랙이글스 소개, 조종사가 되는 과정, 군인의 사명감 등을 설명하며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제91항공공병전대

'21년 활주로 비행포장면 보완작업

제91항공공병전대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1일(월)까지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 비행포장면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AF

한 달, 한 권



수많은 점을 찍어봐요

날이 확 추워졌어요. 가을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살짝 왔다 가고 이제 겨울로 들어서나 봅니다. 여러분 모두 춥지 않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엔 ‘꿈’에 관한 책을 골라 추천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꿈을 이뤘다고 할만한 분이 쓴 책입니다. 나사(NASA) 연구원, 김현정의 신간 ‘점’ 입니다. 네, 미국항공우주국, NASA 연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분은 어떻게 꿈을 이뤘을까요? ‘점’들의 연결을 통해 꿈으로 나아갔습니다. NASA에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시도하고 실수하고 애쓰고 배우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 애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실 ‘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죠. 그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인생에서 점을 찍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돌아해보니 그 점들은 다 연결돼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점들은 당신의 미래와 어떻게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본능, 운명, 삶, 업보 등 무엇이든 간에 점들이 결국 연결되어 하나의 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어야 한다. 설사 당신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잘 닦여진 길에서 벗어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꿈이든 무엇이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지금껏 지나온 모든 시간과 경험의 점들이 결국은 연결되어 선이 되고 면이 된다는 통찰입니다. 잡스의 삶 자체가 그랬죠. 그는 리드 칼리지를 중퇴한 후 캘리그래피가 멋져 보여서 그 강의를 몰래 수강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훗날 그가 애플을 창업하고 매킨토시를 만들 때 캘리그래피 경험을 기반으로 폰트를 디자인했고 이것은 다시 애플의 개성과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캘리그래피라는 하나의 점이 시간을 두고 선으로 이어져 애플이 된 겁니다.

이 책의 저자 김현정 연구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박사 과정 중에 시칠리아에

서 열린 학회에 참석합니다. 학회 행사 후 주어진 자유 시간에 대부분의 참석자는 쇼핑을 즐겼지만, 그녀는 한 나사 연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적지에 동행합니다. 그들은 그날 나사에 대해, 나사의 연구에 대해, 또 김현정 저자의 연구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곤 헤어져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죠. 한데, 우리의 김현정 저자가 이 나사 연구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걸까요? 연구실로 이메일이 옵니다. 그녀를 박사후 연구원(포스트 닥터)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놀라운 메일이..!

처음엔 영어도 썩 잘하지 못하는 자신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버지니아주 햄프턴시의 랭글리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죠. 이곳은 국가항공우주위원회인 나카(NACA)가 나사로 확대 개편되기 전부터 우주 탐사개발연구를 진행한 곳입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의 실제 모델인 캐서린 존슨과 함께 우주개발에 기여한 흑인 여성 공학자들이 일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탄탄대로였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사 연구원이 쓴 책이니 우주개발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연구소와 동료 연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만 중심은 ‘점’이에요. 김현정 연구원이 베이비 연구원으로 시작해 주니어 연구원으로 하루하루 다양한 점을 찍고 지나며 성장하는 얘기! 사람들은 ‘와, 멋지다. 나사 연구원이라니! 꿈을 이뤘네’라고 부러워하지만 그곳에서의 나날은 도전과 실수의 연속이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점들을 지나오며 그녀는 성장했고 나아졌으며 지혜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지혜 성장 일기’예요. ‘한사람이라는 우주’가 12년에 걸쳐서 앞으로 나아간 이야기죠.

김현정 연구원을 통해 듣는 그녀의 수재 동기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 드는 이기적인 천재들은 적고 늘 동료와 함께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축하해 주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착해서라기보다 스마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할 때 자신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저자는 책에서 ‘권투 선수의 길’이라는 시를 소개하는데 감동적입니다.

“그가 링 위에서 춤추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엄마를 위해 그의 자매를 위해 그의 팀을 위해 춤을 춘다...”

책은 한두 페이지의 길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잘 읽힙니다. 일과를 마친 어느 고요한 저녁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곤 여러분의 점을 찍어 보시죠!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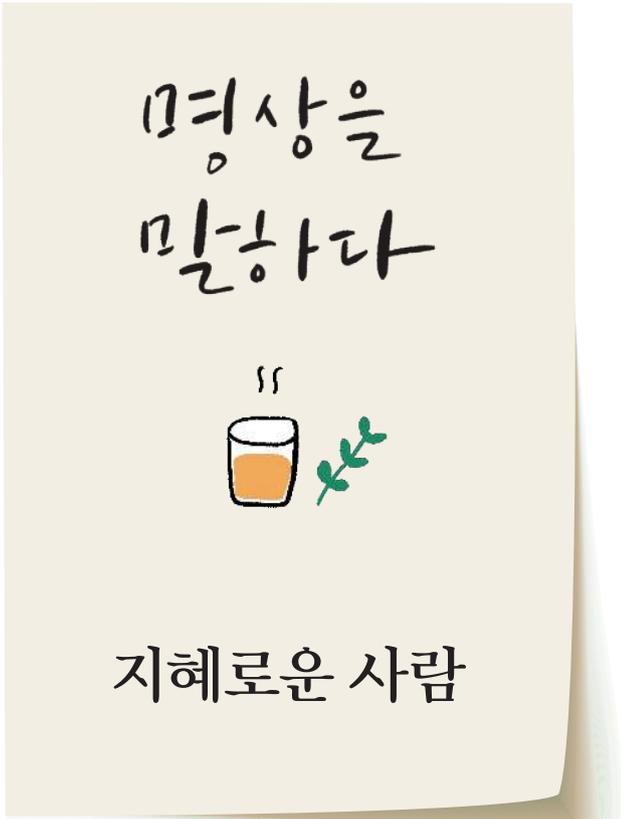


『점』
저자 김현정
출판사 영담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지혜롭다는 칭찬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요. 지혜롭다는 것은 평범한 말인 듯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판단력이 좋다, 균형감각이 있다, 말과 행동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볼 신적이 있나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보다 지혜로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성(profitability)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유익한 일을 하고,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일인데도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유익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겠지요. 예를 들면, 흡연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 또는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적절성(suitability)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도록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시점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할텐데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게 되지요. 이 역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힘은 결국 지혜로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흥분되고 들뜬 상태에서 조금하게 결정하여 처리한 일들은 대부분 잘못되거나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경험으로 남았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하고 처리한 일들은 최선 아니면 차선의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지 흥분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두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상태를 키워나가려 하며, 그런 마음은 지혜로움을 낳습니다. 이는 마치 수면 위 고요한 호수가 대상들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여 마치 물결이 치는 호수면과 같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고 지혜로운 판단도 할 수 없겠지요.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을 키우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한 호수면과 같은 마음상태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움의 2가지 성질, 즉 유익성과 적절성은 고요한 마음상태일 때 생겨나는 것이지 흥분되고 들뜬 마음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되고 침착한 마음상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유익성과 적절성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유익하거나 해로운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인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난 유익하고 적절한 행위를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되고 지혜롭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디 쉽나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많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나요? 먼저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상태에서만 지혜로운 마음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쉽사리 그런 안정된 마음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누구든지 마음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치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치달립니다. 마음이란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원래부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보다 고요하고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mindset) 자체입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제1번 계송의 유명한 문구를 아시나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다른 것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좋은 마음에는 좋은 행위와 결과가, 나쁜 마음에는 나쁜 행위와 결과가 따라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안정되고 가볍다면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 역시 편안하고 순조로울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열린 자세로 현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더욱 지혜로운 마음을 키워 나가는 선순환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천재의 평범하고 특별한 사랑 이야기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에 맞먹는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2018년 3월 14일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주저없이 답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우리의 곁을 떠나고 없는 스티븐 호킹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천재 과학자의 상징이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그의 전공은 우주론과 천체물리학으로, 블랙홀의 특성을 밝힌 독창적 연구로 유명하다. 다소 어려운 그의 연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독특한 외향이다. 21세에 발병한 루게릭 병으로 인해 그는 휠체어에 기대다시피 앉아 목을 오른쪽 어깨에 딱 붙이고 생활했다. 목소리 대신 휠체어에 부착된 음성합성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음으로 대화를 했다.

천재의 사랑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 독특한 것이 있을까? 2014년 개봉한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스티븐 호킹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호킹은 대학 시절 만난 제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거의 평생을 함께 했다. 호킹은 처음 루게릭 병을 진단받을 때 “오래 살아봤자 2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 후 55년을 더 살아 76세에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곧 연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몇십 년을 사랑해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호킹이 이 영화를 보고 “대체로 사실”이라고 했을 정도로 실화를 매우 충실히 따랐다. 호킹과 놀랍도록 닮은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호킹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낸다.

영화는 젊은 시절 건강한 몸으로 친구들과 빠르게 자전거를 타는 호킹을 비추며 시작한다. 장애가 오기 전 그는 ‘사기 캐릭’에 가까울 정도로 지덕체를 다 갖춘 청년이었다. 천재답게 월반을 해서 17살 나이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다. 조정팀의 키잡이 역할을 맡으며 스포츠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인싸’였다. 하루 여섯 시간씩 보트를 타느라 수업을 빼먹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한

수학 능력을 보인다. 그는 교수가 일부러 못 풀라고 내 준 어려운 숙제를 전단지 뒤에 대충 끄적여서 풀고는 “아홉 문제밖에 못 풀었다”면서 겸연쩍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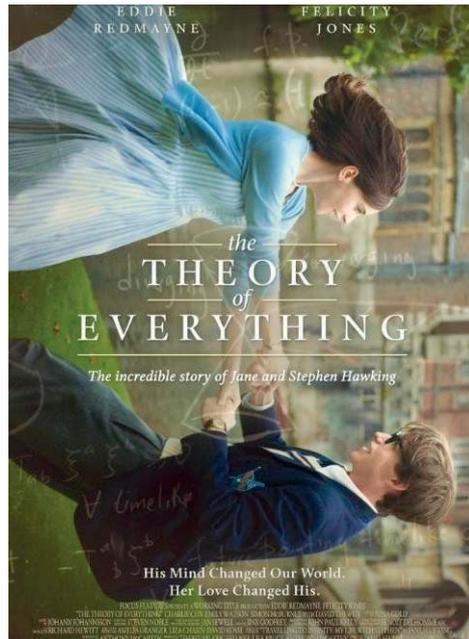
어느 날 호킹은 친구 따라 간 파티에서 제인을 만난다. 그 자리에서 제인과 호킹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한다. 호킹은 관심가는 여자를 앞에 두고서도 별의 탄생이라거나, 세제로 쓰이는 표백제 속 형광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하지만 문과생 제인은 우주를 주제로 농담을 하는 너드 이과생에게 빠진다.

갓 스무살을 넘긴 호킹은 언젠가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느낀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멈춘다거나, 칠판에 판서를 하다가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당황한다. 그리고 어느 날 교정 한복판에서 넘어진다. 의사는 그에게 “진행성 신경 장애”라며 “점차 근육에 동작 신호가 전달되지 못해 근육이 위축되고, 숨쉬는 것조차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절망에 빠진 호킹은 제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지만, 제인은 그를 찾아와 청혼한다.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그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호킹은 “결론을 잘못 도출했군”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남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린다.

건강한 두 사람이 시작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이 계속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쁨이지만, 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슬픔이다. 호킹은 점점 누군가의 부축없이 걷지도 못하게 되고, 곧 기어 다니지도 못하게 된다. 발음이 뭉개져 제인의 통역없이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하기도 힘들게 된다. 제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조나단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과 호킹을 돌본다. 이때부터 호킹과 제인 두 사람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호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아빠의 역할을 조나단이 하는 것만 같았다”고 말한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평생 동반자적 관계로 남게 된다.

영화적으로 미화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그려지는 스티븐 호킹의 사랑 이야기는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다. 장애는 부부 둘이 나눠 지기에 버거운 삶의 무게였다. 영화 속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친 두 사람은 말년에 각자의 사랑을 찾아 떠나 재혼한다. 천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위인의 생애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려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엔, 이 영화는 다 보고나면 아름다운 사랑 영화들보다 더 아름다운 잔상으로 마음에 남는다. AF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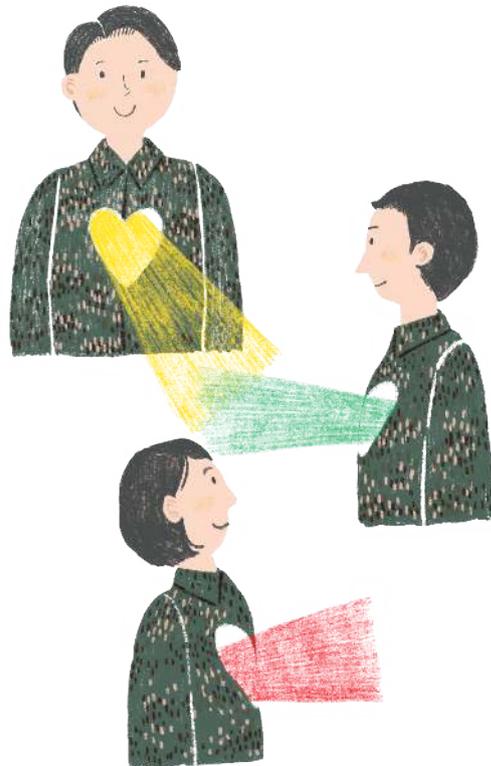
그림 | 강은정 작가

신호등



함께하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 신호가 있다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로 주의를 주듯이
 사람사이 관계에서도 종종 곳곳에서 노란불이 켜진다
 수많은 경고들로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멈추어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항상 사고는 무심코 지나치는 노란 경고등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김재식 작가의 <관계의 신호등>이라는 시입니다.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저마다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을 통해서 각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파란불이 켜져 있다면, 더 가까이 가도 좋다는 의미, 노란불이 켜져 있다면, 멈추지 않으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 그리고 빨간불은 기분이 상해서 이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에 해당합니다. 빨간불은 곧 관계의 손상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란불이 켜졌을 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힘들게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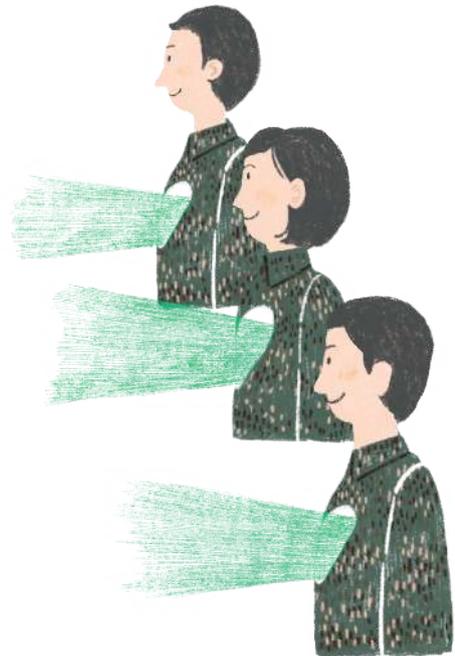




한 사람이 경고의 신호를 주는 방법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각자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평소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지 않더라도, 상급자와의 관계에서는 명확하게 경고의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나 주저하는 태도로 표현할 뿐이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빨간불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 가까운 사이라고 느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신호등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시간이 얼마데, 이것으로 껄껄하게 마음 상하지는 않겠지?’라는 경솔한 생각에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쏟아붓습니다. 이처럼 노란 경고등을 지나치는 일은 나에게서 그저 작은 실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대하든,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도에서 교통 신호를 번번이 무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교통질서는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이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신호등을 무시한다면, 동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부서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공군인 여러분! 우리의 군복과 우리의 마음에 태극기가 올바르게 붙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태극기에 담긴 선조들의 열망과 뜻을 이제 우리가 계승할 차례입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이승현(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기동중대)

나의 어린 속이에게

당신에게 건넸던 마지막 편지의 계절은 어느새 땀바
질과 매미 소리만 줄곧이던 한여름이었습니다. 종종
수화기 너머 안부를 주고받던 우리 사이에 또 한 편의
편지라니. 많이 어색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당신께 크
나큰 고백을 하고자 이 편지를 공들여 바칩니다.

병가를 받고 집에 홀로 있을 적,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무력감 아래 나는 그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
죠. 당신은 그런 세계 찾아온 시련들은 그저 그럴 뿐
이라고. 인생은 태초에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대로
흘러갈 뿐이라며 무덤덤히 제 마음의 등을 쓰다듬었
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오길 바랐을 당신의 염원. 그
러나 하늘은 보란 듯 날 병든 채 당신 앞에 가져다 바
쳤고, 휴가도 외출도 아닌 사고로 응급실에서 나를 세
달 만에 처음 마주봐야만 했던 당신의 역장은 얼마나
하염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아쉽게 시간은 자비가 없었고, 어느덧 복귀 전
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 날 당신의 방
으로 불렀죠. 귀찮은 응석을 부리며, 나는 실은 껴안고
싶었던 당신의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윽고 당신은
핸드폰을 열고선 처음으로 당신 고향의 옛 풍경들을 내

게 보여주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과거의 추억이 당신의 눈망울에다 바다를 지켰
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포르륵, 한 방울 이슬이 당
신의 귀까지 단번에 내달렸던 그 궤적을 여실히 기억
합니다. 기어코 나는 그 때, 바로 결심했으니까요. “다
시 한 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자. 잘 빠진 전역복
을 입고선 당신이 제일 아끼던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당신과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말이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아파서 그간 몇 년째 밖에 나
가지 못했던 당신에게 다가올 봄날에 꽃신을 신기려
지금 이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예쁜 꽃
신을 떠안고, 또 우리 약속을 떠안고. 날 낳은 당신의
앞날 또한 당신의 말대로 정해져 있다면, 당신이 받을
사랑 또한 분명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 이 모락 피어나는 골목길 아래 해맑게 뛰놀다
정 처없이 남겼을 어린 당신의 소중한 발자취
속 인 은행잎이 온화한 가을을 채 떨구기 전에
그대와 함께 밟길 바라며*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맺음.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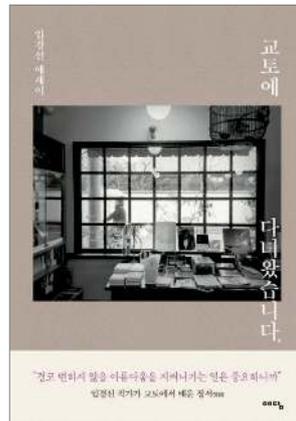
글 | 병장 이상윤(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오래고 무용한 것들에 대한 사랑

‘교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차분함, 전통, 문화 등 정적이고 오랜 느낌의 단상일 것이다. 교토는 그 이름부터 수도, 도읍(京都)이라는 뜻으로 근대에 메이지 정부가 도쿄로 옮겨가기 전까지 천 년 이상 일본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천년 넘게, 그것도 상당히 최근까지 수도로 기능해온 교토에는 자연스레 일본의 전통과 문화가 집결했지만, 동시에 혼잡하고 분주한 ‘메트로폴리스’로서 현대 수도의 기능은 도쿄에 넘겨주어 다양함과 차분함이 공존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큰 상흔도 입지 않아 고스란히 과거를 보존하고 있으니 거대하면서 소박하고, 전통적이면서 편리한 이 도시는 일본 국민 외에도 전 세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흔한 여행 정보책이나 명소 중심의 소개 책자가 아닌, 오롯이 한 작가가 그의 시선으로 ‘교토’를 바라본 감상을 담은 에세이다. 책의 제목이 ‘교토에 다녀오시겠어요?’나 ‘교토에 가봅시다.’가 아닌 ‘교토에 다녀왔습니다.’인 것도 누군가에게 교토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닌 교토를 다녀온 저자의 감상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오래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는 저자는 소박한 찻집, 교토의 강변, 정겨운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본 후 그윽하게 책에 담아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점포인 ‘노포’의 이야기에서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교토만의 화법과 분위기를 다루는 이 책을 읽노라면 모두가 아는 역사 문화도시로서 교토가 아닌, 현지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교토를 읽을 수 있다. 때로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보다 대부분이 모르는 소박한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가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여행과 관광은 다르다. 나그네처럼 한 도시를 자신만의 발길로 거니는 여행(旅行)과 어떤 도시의 저명한 장소를 모두 돌아보는 관광(觀光)은 다른 개념이다. 사람들은 흔히 여행을 꿈꾸지만, 관광을 다녀오게 되어버린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시간을 쪼개고 돈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명소를 보고 돌아오려고 애쓰게 되어버린다. 물론 한 도시의 문화적 명소를 눈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관광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은 무언가에, 특히 스스로에 쫓기지 않고 나그네처럼 발길 닿는 대로 여유롭게 거닐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책도 마찬가지로이다. 천천히 여유롭게 음미하듯 읽는 책이 있고 시간에 쫓기며 의무적으로 읽는 숙제 같은 책이 있다. 전자는 마음에 여유와 여운을 남기지만, 후자는 머리에 단편적인 정보를 남긴다. 물론 두 종류의 책이 모두 우리 삶에 필요하겠지만, 오늘날만큼 여유롭게 교토를 거닐던 저자의 발걸음과 시선을 쫓아 교토의 시간에 머물러보는 것은 어떨까.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임경선 지음
예담 출판사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수용의 온도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전문가를 꼽으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아동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오은영 박사 특유의 공감력에 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고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아낸다. 오은영 박사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상황은 어쩌면 어디에도 터놓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삭막한 사회를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의 짐이 있어도 가리기에 급급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슬픔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정글 속에 놓인 먹잇감처럼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되곤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외치지만, 존중을 받기가 부담스러운, 그래서 배려와 존중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배려와 존중을 차단했기에,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배려와 존중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은영 박사와 같은 상담가를 무의식적으로 찾게 된다.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부담이 되지도, 약점 잡히지도 않기엔 이야기를 꺼낸다.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도, 존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방법을 묻는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거창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이솝우화에 서는 해와 바람 이야기가 나온다. 바람과 해는 행인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한다. 바람은 열심히 강풍을 불어 내지만, 오히려 행인이 자기 옷을 더욱 여몄고, 바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해는 먼 곳에서 열기

를 뿜어낸다. 따뜻해진 날씨에 행인은 자연스럽게 자기 옷을 벗었고, 해가 내기에서 승리했다.

대부분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설피게 타인의 속마음 일부를 직접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못한 부분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면, 안타까운 마음에 다그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선 의욕에 가득 찬 눈으로 “왜?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니까. 뭘데?”라고 속마음을 캐묻는다. 상대방은 차가운 바람에 더욱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해처럼 상대방이 기꺼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서툰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지켜보고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잔뜩 나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편하게 대하고, 속마음을 어렵게 터놓을 때는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은영 박사 역시 아주 간단한 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여태껏 반대로 해왔기에 누군가에게 존중받지도, 누군가를 존중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겨울의 시작 12월. 기록적인 한파에 우리 몸은 추위에 떨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서로의 온도로 따뜻해지길 바란다. 이솝우화의 해처럼, 오은영 박사처럼, 서툰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수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 AF

마음의 소리

장인선

swaha12**@daum.net

모든 기사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드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획특집에 소개된 '공군본부 북카페 휴를 소개합니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네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부대 장병들을 하나로 묶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북카페 휴'가 되기를 응원할게요.

(AF.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편집실부터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해정

dagul82**@naver.com

535:1이란 치열한 경쟁의 철벽을 뚫고 합격한 강성태, 강해구, 김보준, 손효영 네 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지엔 기관사, 바다엔 항해사, 하늘엔 조종사 그 중에서도 조종사란 하늘을 주름잡는 인류 최대의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직종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함을 장본인이 아니면 모를 일이겠죠. 만인이 우러러보며 박수를 받을 국민조종사분들을 존경하고도 남으리라 여깁니다.

(AF. 국민조종사 한 분 한 분이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단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국민조종사 행사가 1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열기는 식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독자의견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건익

kangg***@gmail.com

월간 공군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미래에 공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년 임관하는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어쩌다 공군을 선택했고 공군이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F.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조금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년호 개편 때는 이 내용을 착안해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2 2



5 2 2